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1.6m→1m' 낮춰 승인

문화재청, 준공 후 3년간 문화재 모니터링 조건...환경단체·주민 반발

제동이 걸렸던 '광주호 독 높이기' 공사가 재개된다. 문화재청이 두 차례나 불허했던 한국농어촌공사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열린 '제 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 위원회' 회의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담양 식영정 일원·광주 환벽당 일원·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주변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원안 가결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애초 1.6m 올리겠다는 독 높임 계획을 1m 높이는 것으로 조정해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 '명승'으로 지정된 식영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사업 추진 시 문화재 환경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농어촌공사가 신청했던 독 높이기 공사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추진 상황

| | |
|---------|---|
| 2010.11 | 기본계획 승인(독높이 82.85m(▲1.6m), 홍수위 79.85m(▲1.1m)) |
| 2012.4 | 공사착공 |
| 2012.11 | 식영정·환벽당·왕버들군 문화재 현상변경 1차 신청(불허)→도로침수, 경관 변화 우려 |
| 2013.8 | 문화재 현상변경 2차 신청(불허)→홍수위 조절 등 대책 마련 |
| 2013.11 | 문화재 현상변경 3차 신청(독높이 82.25m(▲1.0m), 홍수위 79.21m(▲0.46m)) |
| 2013.12 | 문화재청,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조건부 가결 |
| 2014.12 | 완공예정 |

문화재청은 그러나 ▲환벽당 앞 충효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문화재청 설계 검토를 받아 실시할 것 ▲독 높이기 사업 준공 후 3년간 식영정·환벽당·충효동 왕버들군 등 3곳의 국가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고하는 방안을 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식영정 앞 전신주 지중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농어촌공사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난 만큼 늦어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독 높이기 공사에 본격

시작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환경 단체 등은 그러나 독 높이기 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문화재청 허가 이후에도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바람과 달리 독 높이기 사업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수월교 일대 보수 공사'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 반발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농어촌공사 담당자 관계자는 "문화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그 버스'만 보면... 딸 잃은 어머니의 '트라우마'

지난 12월 나주 교통사고 40대 어머니의 '애끓는 母情' 버스 보면 길로 뛰어 들어

이모(여·48)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나주시 성북동 현대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앞으로 뛰어 들었다. 옆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제지하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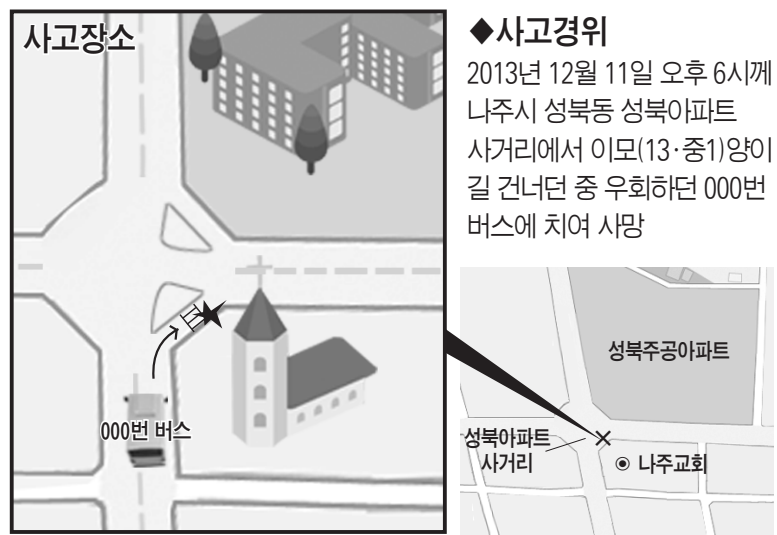
이씨는 이날 오후에도 같은 번호를 단 버스를 향해 달려들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

나주 성북동 일대에서 이씨의 위험한 행동은 주변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됐다. 지난달 발생한 딸의 죽음 이후 시작됐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12월 중학생 딸을 교통사고(광주일보 2013년 12월13일 6면)로 잃었다.

이씨 딸(13·중학교 1년)은 지난 12월 11일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우회전하던

■중학생 딸 잃은 나주 40대 어머니의 '트라우마'



◆사고경위
2013년 12월 11일 오후 6시께 나주시 성북동 성북사거리에서 이모(13·중1)양이 길 건너던 중 우회하던 000번 버스에 치어 사망

시외버스에 치어 숨졌다. 집으로 가던 길, 교통섬까지 채 5m도 되지 않은 짧은 거리를 건너다 벌어진 사고였다.

어머니 이씨는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을 잃은 슬픔과 어린 자식을 지켜

지르다가 하면, 급기야 버스를 향해 뛰어 들어 운행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고 시외버스만 보면 무작정 뛰어드는데, 자칫 이씨도 다칠까봐 불안하다"는 주민 신고도 경찰에 잇따랐다.

버스 회사도 "자식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나"면서도 이씨 문제를 부심하고 있다.

버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부 버스 기사들은 이씨 집 인근 사고 구간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도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상담 등을 권유했지만 성폭행 등 직접 피의자를 제외한 가족, 또는 유족들의 정신적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큰 사건을 겪은 뒤 경계 되는 정신적 후유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한 치료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900억대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광주지법 선고

법원이 900여 억원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음찰액을 담합 결정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립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입찰은 가격점수에 40%의 비중이 있고 애초 투찰(응찰) 계획과 달리 변형을 통해 공사 추정금액의 94.27~94.44%로

입찰이 이뤄지면서 참가자들의 가격점수 변별력이 없어졌다"며 담합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 3개 회사와 코오롱글로벌의 수주팀장들은 2011년 2월 중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92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4개의 투찰표를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회사는 코오롱글로벌 94.27%, 금호산업 94.32%, 현대건설 94.38%, 대립산업 94.44%를 배정받아 각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출했다. 총인시설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 측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교수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복마전 끝에 당시 대립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남종씨의 노제가 열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울역 분신 이남종씨, 광주 금남로 노제·망월묘역 안장

지난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숨진 이남종(40)씨의 노제와 장례식이 4일 광주에서 거행됐다.

"민주투사 이남종 열사 민주시민장례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씨의 노제를 열었다.

임추섭 민주수호 광주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조사를 통해 "이남종 열사는 온몸을 던져 우리들의 가슴에 투쟁의 불길을 지피고 있다"면서 "사담다운 세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부디 영면하시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유가족 대표는 "형의 외침이 꽃이 돼 온 세상에 퍼지길 바란다"면서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노제를 지낸 뒤 광주시 망월동 공묘지로 이동해 장례식을 진행했다.

애초 고인의 5·18 구묘역인 망월동

묘역 안장 과정에서 안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지만 광주시가 시립묘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출신인 이씨의 안장에 동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광주 출신인 이씨는 지난달 31일 정부 비판과 함께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4년도 제 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4년 2월 17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100명) 오전 9:00 ~ 1:20
 야간반(100명) 오후 6:00 ~ 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10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EL 062)605-1112, 1023 FAX 062)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반비)

| 구분 | 영업시간 | 성인(세탁비포함) | 취학어린이(포함비포함) | 미취학어린이(포함비포함) |
|-------|-------------|-----------|--------------|---------------|
| 평일 | 11:30~22:00 | 15,500원 | 9,000원 | 6,000원 |
| 토일공휴일 | 11:30~22:00 | 19,500원 | 12,000원 | 8,000원 |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 | | |
|---|--|---|
| 매콤한 요양지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 콩골레 Yongsolle ₩10,800 |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
| 일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 크랜베리 디야블로 폴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polo steak ₩10,800 |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